

#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 창간호에서 1999년도까지-

최경숙\* · 송미순\*\* · 황애란\*\*\* · 김경희\*  
정명실\*\*\*\* · 신성례\*\*\*\*\* · 김남초\*\*\*\*\*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전문직으로서 간호실무에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지식체 규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Barbard, 1980). 과학의 기본목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Fraassen, 1986) 간호지식의 개발과 확대의 유일한 방법은 간호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 연구는 나이팅게일 시대부터 질적 간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 1920년대 대학과정이 생기면서 그 초창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간호학의 지식체 도출을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 '대한간호'의 개명 출간과 1955년 간호대학 과정의 설립으로 간호교육 향상의 계기가 이루어졌으며 1961년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간호연구 활동이 전개되었다(강윤희, 이숙자, 1980). 연구 내용은 대개 간호업무 분석, 간호인력의 수요공급, 교육과정의 평가, 행정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고 사례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1970년에는 순수학술지인 '간호학회지'가 창간되

어 이후 많은 연구논문들이 게재되었으나 최근까지 간호계는 경험적 모델을 지향하여 간호현상 중 과학적 분석에 적합한 부분만을 분리해 내었다. 그러나 요즘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도입되면서(최영희, 1995; Silvar, Rothbarth, 1984) 임상지식을 향상시키고 간호과학의 정립을 위한 전략으로 다원적 연구방법, 협동적 연구팀, 다방면의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Gotner, 1987) 따라서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체 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간호연구자들의 노력으로 1999년 '간호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업적 평가를 통해 인준을 받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1970년 1권1호부터 1999년 학술진흥재단의 인준을 받기까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일부 분석 평가한 몇 편의 연구결과들이 나왔지만 주요개념, 관심영역, 연구유형, 연구설계유형, 연구방법 등에 대한 분류가 미흡했고 시대에 따른 내용의 흐름 및 간호중재별 분포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리고 연구해야 할 내용에 관한 규범적인 문헌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쪽으로는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Moody et al., 1989). 올해로 간호학회지가 발간 된지 30년이 된 이

\* 중앙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국립의료원간호대학 교수  
\*\*\*\*\* 삼육대학교 교수, \*\*\*\*\* 가톨릭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투고일 1월 31일 심사일 9월 6일 심사완료일 10월 10일

시점에서, 지금까지 본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해 간호연구가 나아가갈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에서 1999년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연구논문들을 여러측면에서 분류,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호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간호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식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회지' 창간호에서 1999년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연구논문들을 주요개념, 관심분야, 연구유형, 연구문제 진술유무, 연구가설유무, 연구설계유형, 연구방법, 이론적 기틀유무,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도구 및 신뢰도와 타당도, 자료분석방법, 윤리적 사항의 고려 유무, 시대에 따른 내용의 흐름 및 간호중재별 분포를 조사하여 지금까지의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아울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간호연구는 간호에서 흥미있는 개념,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Hinshaw, 1989) 간호지식을 발굴하고 정련하고 확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이은옥 등, 1998). 따라서 간호발전에 유용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Doering, 1992).

Nightingale에서 Downs까지 중요한 연구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학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진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Moody et al., 1989) 많은 간호문헌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간호연구의 영역이어야 하는지? 어느 영역에 연구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이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Brown, Tanner & Padrick, 1984; Jacobson & Meininger, 1985). 전통적으로 간호사는 간호지식을 확장시키는 과학적 방법의 유래에 대해 단순한 접근법으로 소개받아 왔다. 1930년대 초 과학적 증거는 절차준거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었으며 1960년대 McCain은 사정에 의한 간호를 강조하였다. 과학적 방법에서 이러한 강조는 1970

년대 말까지 이어졌으며 그 후 직관과 내성에 따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Silvar, 1984). 요즘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견해들은 자연계의 상호작용 특히 인간, 현상, 지식의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요소와 개인적 경험의 특성을 중시한다(Doering, 1992). 그러나 어떤 연구방법도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강점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간호현상은 너무나 복잡적이어서 한가지 방법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두 연구방법이 조화롭게 사용되는 전략이 필요하다(최영희, 1995).

간호는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기초가 되는 지식의 확장을 위하여 실무에서의 간호사의 연구참여가 활발하여야 하는데(홍근표, 1983)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어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이유는 연구자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실제 세계와 연구디자인이 일치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Barnard, 1980).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패러다임을 반복적으로 연구 실시하여 실무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Johnson, 1976). 즉 건강과 질병에 관한 개개인과 가족의 적용상황과 간호과정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질병을 앓는 자,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질병의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Barnard, 1980).

아울러 간호연구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의 구축과 연구지도에 필요한 인력을 증강시키는 단계에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체를 구성하는 현상의 확인과 연구에 초점을 두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Hinshaw, 1989). 앞으로의 간호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되 반드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야 한다(홍근표 등, 1983; Notter, 1971).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실질적 내용을 개발하는 것은 간호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다(Hinshaw, 1989). 간호학에서 그 기초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이전 문제에 의해 앞으로 방향제시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검증은 새로운 계기와 간호과학의 명료화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명료화를 통해 간호학만의 특성과 공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Riegel et al., 1992).

ENR(Established nurses researcher)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선정한 대상자 즉 저명한 연구가 35명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연구주제의 발견과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이디어의 발견에 대해서 임상적인 것 87%, 문헌에서 57%, 동료에게서 46%, 학생에게서 28%, 자금조달 우선순위 9%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중

요하고 가치있는 연구 내용임을 결정하는데는 실제 세계에의 적용, 방법론적인 건전함, 지식축적의 잠재성, 이론의 유용성, 적절성, 개인적인 관심, 실행성 및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Moody et al., 1989). Loomis(1985)는 1976년에서 1982년까지 25개 간호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총 319편을 분석 그중 임상간호연구가 78.4%, 간호사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21.6%라고 밝혔다.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olicy(미국간호협회정책, 1985)의 21C를 향한 간호연구방향의 우선 순위 5가지를 살펴보면 1)간호실무, 2)간호의 전달, 3)간호교육, 4) 간호의 역사적인 측면, 5) 간호의 전문적인 측면 등이다. Haesook Suzie Kim(1983)의 우선 순위 4가지는 미숙아간호, 암환자간호, 여성건강, 노인과 어린이 간호 등이며 LeWandowski(1983)등은 중환자에게 최적의 수면-휴식양상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환자 간호사들의 소진을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뇌손상 환자의 뇌압상승에 구술적, 환경적 자극이 미치는 영향, 인공호흡기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서 호흡기를 제거할 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등은 무엇인가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가실(1992)의 간호연구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적응(25%), 암 환자 간호(18%), 동통(8%), 사회적지지(6%), 노인 관리(6%), 등의 순서였다.

강윤희와 이숙자(1980)의 1970-1979년의 10년간 대한간호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31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상분야의 연구활동이 부진하며 이론적 연구(31.4%)보다 실제연구(68.6%)가 많았고 연구영역은 간호사자질(32.1%), 간호행위(46.2%), 간호대상자(21.7%)의 순위였으며 조사연구(76.9%, 기타 문헌 12.3%, 실험 6.9%, 사례연구 4.7%)가 많고 설문지사용이 흔하며 자료분석방법은 대부분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홍근표 등(1983)이 13년간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199편과 5년간 "N.R."에 게재된 259편 총 458편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두 학회지 모두 연구자는 교수가 많았고 전공영역은 성인간호였으며, 문제진술, 가설설정, 고급통계분석 및 제언은 "N.R."쪽이 더 잘 표현되어 있었으며 간호학회지는 조사연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N.R."에서는 사후연구와 조사연구가 거의 같은 비율이었음이 나타났다.

박성애(1989)는 1983-1988년 간호연구논문의 주요 개념을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간호연구, 역할, 신생아

간호, 지각, 도구개발, 대응의 순위로 나타냈으며 구미옥과 이은옥(1990)은 1979년부터 1990까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신념에 관한 논문 전수 33편을 조사한 결과 건강신념과 환자역할 행위와의 관계분석은 대부분 상관계수(29편)를 이용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은옥 등(1992)은 1970년부터 1990까지 발표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요개념으로 다룬 논문 전수를 조사하였는데 간호연구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이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상관성연구, 실험연구, 비교연구가 증가함을 보였다. 고옥자 등(1992)의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2354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로 539종이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1편당 약 2개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주요어로 간호사(5%), 불안(3%), 지식/태도/실천(2%), 스트레스/스트레스요인(2%), 정신장애(1%), 수술(1%), 노인(1%), 역할(1%)등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내용을 연대별로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자료

분석대상으로 이용된 논문은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1권 1호)부터 1999년도 12월말 까지(29권 6호)에 게재된 총 959편 이었다.

#### 3. 분석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도구는 기존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분석도구의 내용은 크게 연구의 유형, 연구설계,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론적 기틀 유무, 표본추출, 연구도구의 종류,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유무,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면을 고려했는지 여부, 제언유무 및 기타 적용된 간호중재의 유형 등 주로 객관적인 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 Ⅳ. 연구결과

대한간호학회지가 창간된 1970년부터 지난 1999년

까지 게재된 논문 총 959편의 연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한간호학회 게재논문의 연대별 분석

(N=논문편수)

항 목	구 분	년 도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연구유형	학위논문	82	38	64
	연구비수혜논문	2	24	208
	일반논문	92	123	326
	소 계	176	185	598
연구설계	순수실험연구	.	.	8
	유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1	25	23
	실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	.	53
	협연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	.	8
	구 모의대조군 전후설계	.	.	.
	원 단일군 전후설계	8	9	10
	시실 단일군 사후설계	.	.	1
	연 구 중단적 시계열설계	.	.	1
	비 조사연구	149	120	380
	실 사례연구	4	.	7
	협 연 역사적연구	.	.	10
	구 방법론적연구	.	14	25
	기 타	14	17	72
	소 계	176	185	598
연구방법	양적연구	169	175	486
	질 현상학	.	.	33
	적 근거이론	.	.	20
	연 민속지	.	.	14
	구 기타	.	2	25
	기타(총설)	7	8	20
소 계	176	185	598	
연구대상자 (§)	환자	50	60	192
	보호자	.	11	42
	여성, 임산부	24	15	30
	노인(지역사회)	3	5	32
	아동, 청소년	18	20	61
	성인(지역사회)	15	18	82
	간호사 및 간호학생	65	47	84
	기타(병원환경 및 간호교육기관, 개념분석, 총설포함)	5	9	75
	소 계	176	185	598
이론적기틀	유 무(해당없는 경우 포함)	8	82	256
		168	103	342
	소 계	176	185	598

(N=논문편수)

항 목	구 분	년 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70-1979)	(1980-1989)	(1990-1999)
표본추출	단순 무작위표출법		1	·	8
	층화 무작위표출법		·	·	5
	집락표출법		·	·	4
	계통적 표출법		·	·	1
	임의표출법(편의)		163	177	455
	눈덩이표출법		·	·	·
	할당표출법		·	4	1
	의도표출법		·	4	79
	전문가표출법		·	·	·
	기 타		12	·	45
		소 계	176	185	598
연구도구	신체적측정법			30	125
	정서적 도구			35	145
	사회적 도구		분류 어려움	114	115
	문화적 도구			1	6
	영적 도구			1	13
	기타(해당없는 경우 포함)			4	194
			소 계	176	185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유		7	72	400
	무(해당 없는 경우 포함)		169	113	198
			소 계	176	185
자료수집 (§)	생리적측정법		26	30	79
	사회심리적 측정법		·	85	34
	관찰법		12	16	13
	자가보고법		85	10	23
	면접법		33	26	79
	질문지법		·	66	252
	Q-분류법		·	·	14
	델피법		·	1	·
기타		29	6	104 (중복 포함)	
		소 계	185	240	598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고려	유		2	57	128
	무(알 수 없음)		174	128	470
			소 계	176	185
제 언	유		89	118	496
	무		87	67	102
			소 계	176	185

§ : 중복응답

## 1. 1970년대 게재된 논문분석(창간호- 1979년 사이)

1970년대에는 총 17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단독논문이 153편, 공저가 23편이었다. 연구유형은 학위논문이 82편, 일반논문이 92편이었고 그 중 2편이 연구비 수혜 논문이었다. 연구문제의 진술이 있는 경우가 41편, 없는 경우가 135편이었으며 연구가설이 있는 논문이 46편, 없는 논문이 130편이었다. 연구설계유형을 보면 실험연구가 9편(단일군 전후설계-8편, 비동등성대조군전후설계-1편), 비실험연구가 153편(사례연구-4편, 실태조사-9편, 임상적관찰-6편, 자료분석-19편, 예측연구-1편을 포함한 조사연구-149편), 기타 14편으로 조사연구가 약 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방법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로 169편(조사연구-147편, 상관성연구- 11편, 요인연구-3편, 비교연구-8편)이었고, 종설이 7편이었으며 질적연구는 1 편도 없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생 및 간호사 대상이 65편, 환자대상이 50편, 여성대상(임산부)이 24편, 병원 및 간호교육기관 대상이 5편, 아동과 청소년대상이 18편, 지역사회주민대상이 15편, 노인대상이 3편, 간호사의 의료인대상이 4편(중복대상이 있음)이었다. 대다수의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이 없었으며, 있는 경우의 논문이 8편이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단순무작위추출이 1편, 임의추출이 163편, 기타가 12편이었다. 자료수집시 이용한 도구는 양적논문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질문지 도구였던 관계로 도구의 유형을 따로 분류할 수 없었으며,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언급되어 있는 논문은 7편에 불과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생리적 측정이 26편, 관찰법이 12편, 면접법이 33편,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법이 85편, 기타가 29편(주로 의무기록 분석이 있음, 종설 7편도 포함되며 수집방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이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는 논문이 174편이었고, 윤리적인 측면이 고려된 논문이 2편이었다. 자료분석은 주로 백분율, 빈도수,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를 주로 이용하였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사례가 제시되었으며 t-검정이 42편, F- 검정이 17편, 카이검정- 46편, 상관계수 22편 (rho: 1편, Pearson :18편, Doo little 1편, multiple 2편), 단계적 중회귀분석 7편, 다중비교 2편(Duncan 1편, Schffe'1편), critical ratio 4편, 변량분석 2편, 요인 분석 1편, 비율검정 1편 등이었다. 논문에 사용된 간

호중재 내용으로는 결장루 주위 피부간호, 구강간호, 심리적중재(대화,교육,설명), 무균술, 유방간호, 유방암 사지와 압출, 냉찜질, 환자중심간호, 카테터 관련 안위 간호, 포괄적간호(입원간호,일반간호,특수간호), 조 기수유, 위기해결, 가온침대제공, 상호교제, 양털,젤패드 및 스폰지 제공 등이었고, 간호중재가 제공된 실험 연구는 최근의 논문들처럼 연구설계, 방법과 절차가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연구결과의 적용 영역은 간호교육 영역이 35편, 간호실무 영역이 129편, 간호행정 영역이 7편, 학교보건 영역이 5편이었다. 또한 제언이 있는 경우는 89편, 없는 경우가 87 편이었다. 주요개념의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큰 흐름을 보았을 때 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과 임상간호 교육,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실무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업무, 근무성적, 지도성 유형 등의 병원 간호행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밖에 모자보건, 가족계획, 그리고 회충등의 기생충 보유, 장티푸스, 급성전염병 등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해 주고 있었다.

## 2. 1980년대 논문분석(1980- 1989년 사이)

1980년대에는 총 18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석사학위논문이 31편, 박사학위논문이 7편, 연구비 수혜 논문이 24편이었고 나머지는 일반논문이었다. 종설은 8 편이 있었고 질적연구는 개념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2편이 있었다. 연구설계를 보면 비실험연구에서는 서술적 상관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111편, 종단적 서술 연구가 1편, 비교조사연구가 6편, 평가조사연구가 2편, 도구개발연구가 14편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 연구가 25편, 원시실험연구가 9편이었다. 유사실험연구는 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주를 이루었고, 원시 실험 설계는 9편으로 단일군 전후설계가 많았다. 기타로 동물실험연구가 3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60편, 보호자가 11편, 여성 및 임산부가 15 편, 노인(지역사회)이 5편, 아동 및 청소년이 20편, 성인(지역사회)이 18편, 간호사가 47편, 기타가 9편이었다. 대상자수를 살펴보면 비실험설계의 경우에는 100 명이 27편, 200명이 40편, 300명이 28편, 400명이 7 편, 500명이 5편, 600명이 4편, 700명이 3편, 800명이 1편, 900명이 1편, 1000명이 1편, 1000명이 초과한 논문이 6편이었다. 유사실험설계의 경우에는 10명이 1편, 100명이 17편, 200명이 7편이었고 원시실험설계

의 경우에는 10명이 2편, 100명이 6편, 200명이 1편이었다. 이론적 기틀이 도식화 되어 있거나 문헌고찰에서 설명된 경우는 82편이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대부분 비확률 표출이었고 그 중에서 할당표출이 4편, 의도표출이 4편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임의표출이었다.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사용회수는 신체적 측정법이 30회, 정서적 도구가 35회, 사회적 도구가 114회, 문화적 도구가 1회, 영적도구가 1회, 평가도구가 2회이었다.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기술된 논문은 72편에 불과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생리적 측정법이 30회, 사회심리적 측정법이 85회, 관찰법이 16회, 자가보고법이 10회, 면접법이 26회, 질문지법이 66회, 델파이법이 1회, 기타 의무기록열람이 5회, 전화면접이 1회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측면이 고려된 논문은 57편이었다. 주로 사용된 자료분석법은 실수, 백분율,  $X^2$ -test, t-test, paired t-test, ANOVA, Sheffe' test, ANCOVA,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cronbach'  $\alpha$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이었고, 이 이외에 Principal factor analysis, 회전법 : Varimax, Component factor analysis, cross tabulation, test-retest stability, wilcoxon rank test,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discriminant analysis, duncan multiple range test, path analysis, Fisher's Z-transformation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간호중재는 체위변경(2편), 외요도구 간호(2편), 근이완 훈련(3편), 이완술 정보제공, 방문간호, 간호진단 프로토콜적용,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당뇨교육, 근육 주사법, 감각운동자극, 에어로빅 댄스훈련, 구두굽의 높이, 건강계약, 가족치료, 수분섭취량의 변화, 호흡근육훈련, 3교대 간호활동, 스트레스 관리교육, 지지적 집단간호, 지지 강화교육, 인간관계훈련프로그램, 지지적 접촉, 환자교육(4편), 라마즈 교육, 산전교육, 촉각자극/청각자극, 간호개념교육, 동통유도, 소독종류등 이었다. 제언이 기술된 논문은 118편이었으며 연구결과의 적용 영역은 주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고, 교육과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와 연구나 이론분야에 적용 가능한 연구는 소수 이었다. 주요개념별로 보면 감염이 10편, 통증이 9편, 스트레스-적응이 8편, 불안이 6편, 심폐기능이 6편, 지식-태도가 5편, 이행이 5편, 일차보건의사업이 5편, 지지간호가 5편, 간호행정업무가 5편, 근육이완법이 4편이었으며 성장-발달, 간호개념-이론, 간호요구도, 건강문제, 건강행위, 간호활동, 가족, 노인건강, 사회적 지

지, 간호조직이 각각 3편씩 이었고 만족도, 간호과정, 간호기록, 간호진단, 라마즈교육, 모아애착, 수면, 간호정보제공, 자아개념, 신체상, 교육과정, 자기노출, 환자분류체계, 건강인지, 신생아반응, 간호학, 역할수행, 간호교육이 각각 2편씩이었고 건강증진, 수가분석, 우울, 불면, 영적간호, 죽음, 건강계약, 분류기준, 지방대사, 의사소통, 지지적 접촉, 성역할, 감정이입, 근육주사법, 역할갈등, 의료이용행위, 가치관, 건강개념, 간호연구, 리더쉽, 소진, 보건교육, 자가간호역량, 한냉노출, 간호철학, 월경, 가정간호, 의료보험수진 등이 각각 1편씩이었다.

### 3. 1990년대 논문분석(1990-1999년 사이)

1990년대에는 총 59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 중에서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329편, 단독연구는 269편이었다. 연구유형별로는 일반논문이 326편, 연구비 수혜 논문이 208편, 학위논문이 64편이었다. 연구문제가 진술되어 있는 경우는 81편에 불과하였고 연구가설은 103편의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연구설계를 보면 실험설계에서는 실험연구가 8편이었고 유사실험연구는 84편이었는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가 5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23편, 비동등성대조군 사후설계가 8편이었다. 원시실험연구는 12편이었으며 거의 단일군 전후설계로 이루어졌다. 비실험설계는 422편이었고 이 중에서 조사연구가 380편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방법론적 연구가 25편, 역사적 연구가 10편, 사례연구가 7편이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486편, 질적연구가 92편이었다. 질적연구는 현상학이 3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거이론 20편, 민속지 14편, 기타가 25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19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가 84편, 성인이 82편, 아동 및 청소년이 61편, 보호자가 42편, 노인이 32편, 여성 및 임신부가 30편, 기타가 75편이었다. 연구 대상자수를 살펴보면 101명 이상이 234편으로 가장 많았고 21명에서 60명 이하가 137편, 20명 이하가 95편, 61명에서 100명 이하가 71편, 기타 61편 순이었다. 이론적 기틀이 도식화 되어 있거나 문헌고찰에서 설명된 경우는 256편이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대부분의 논문, 즉 535편의 논문에서 비확률표출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임의표출이 455편이었고 의도표출이 79편이었다. 확률표출법을 사용한 논문은 18편이었는데 단순무작위

표출이 8편, 층화무작위표출이 5편, 집락표출이 4편, 계통적 표출법이 1편이었다. 논문에 사용된 도구는 정서적 도구가 145편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측정법이 125편, 사회적 도구가 115편, 영적 도구가 13편, 문화적 도구가 6편이었다.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기술된 논문은 400편이었고 기술되지 않는 논문은 198편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 252편으로 가장 많았고 생리적 측정법이 79편, 면접법이 79편, 사회심리적 측정법이 34편, 자가보고법이 23편, Q-분류법이 14편, 관찰법이 13편 순이었다. 자료수집 시 윤리적인 측면이 고려된 논문은 128편이었다. 자료 분석은 양적연구의 경우에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통계만 제시한 논문이 36편이었고 추론통계를 제시한 논문이 414편이었다. 추론통계중에서는 모수검정이 182편으로 가장 많았고 비모수 및 모수 검정이 118편, 비모수검정이 40편 순이었다.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Van Koam, Spiegelberg, Strauss & Corbin, Giorgi, Colaizzi 등의 분석절차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간호중재는 냉요법, 온요법, 가족지지, 체위, 흉부타진요법, 분무요법, 호스피스간호, 유방간호, 심리재활, 근관절운동, 집단교육, 기관내흡인, 음악요법, 에어로빅, 유치도뇨, 유방자가검진, 구강간호, 섭취 및 배설량, 비디오교육, 손마사지, 울동적 동작훈련, 자아존중감, 외과적 손씻기, 질회음근육운동, 효능증대 프로그램, 근력강화운동프로그램, 건강상담, 행동수정프로그램, 간호업무전산프로그램, 구조화된 환자교육, 통합적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희망증진프로그램, 자기간호교육, 간호진단, 저강도운동프로그램, Critical Pathway, 식이, 환경요인, 통증관리, 간호진단전산시스템, 만화를 이용한 정보제공, 방문간호, 간호진단 프로토콜적용, 3교대 간호활동, 소독종류등으로 다양하였으나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 음악요법, 및 운동요법등을 활용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제언이 기술된 논문은 496편이었으며 연구결과의 적용 영역은 실무에 적용 될 수 있는 연구가 387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육은 176편, 행정은 34편, 기타가 1편이었다. 주요개념을 간호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기본·성인 분야가 116편, 모성분야가 83편, 보건교육분야가 57편, 간호관리분야가 52편, 아동분야가 35편, 정신건강분야가 33편, 지역사회분야가 26편, 간호윤리 및 철학분야가 16편이었고 그 이외에는 기타에 속하였다.

##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간호계에서 최초로 발간된 전문학술지이며 간호학계 내에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학술지이고, 현재 간호학술지 중 가장 발간 회수가 많은 대한간호학회지에 지난 30년간 발표된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학 연구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한국 간호학의 현주소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의 창간이후 실린 30년간의 논문 총 959편의 논문이 분석되었으며 객관적인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기에 질적인 평가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계재논문의 편수는 학회지의 발간 횟수가 적었던 70년대, 80년대의 논문은 176편, 185편으로 비슷하였으나 90년대의 논문의 수는 598편으로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논문 편수 증가는 회원 수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으나 대한간호학회지의 투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들에게 논문발표의 요구가 많아지고 특히 우수한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선호도가 높아져서 생긴 현상으로 생각된다.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 발간 횟수는 70년 창간호 이후 72년까지 년 1회 발간되다가 73년부터 84년까지는 년 2회 발간이 되었으며 85년부터 1992년까지는 년 3회,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년 4회였으나 1999년도에는 년 6회로 발간횟수가 증편되고 한 호당 계재논문 편수도 꾸준히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한간호학회지의 외형적인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재된 논문의 연구 유형은 학위 논문이 70년대에는 176편 중 82편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에는 185편 중 38편이었고 90년대에는 598편 중 64편으로 그 비율이 월등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간호학문의 초기에는 학위를 위한 목적 외에 논문을 써야하는 요구가 적었으나 이후 학위를 끝 낸 간호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독 논문의 비율이 90년대로 가면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학위 논문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구논문의 질적향상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공조하는 공동연구의 분위기로 변화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구비 수혜 논문의 수도 70년대에는 2편에 지나지 않았으나 80년대에는 24편, 90년대에는 208편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비 수혜 논문의 증가는 간호학이 학문분야 간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연구방법에서 조사연구가 70년대에는 149편(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에는 120편(66%)으로 약간 줄었고 90년대에는 380편(66%)으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조사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차츰 감소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70년대에는 질적 연구가 한편도 없었고 80년대에는 2편이 있었으며 90년대에는 92편으로 증가하여 최근의 간호연구 방법의 다양화,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박성애 등 (1994)이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87편과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창간호부터 91년까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적된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간호 지식체 발전에서 전통적인 자연과학의 실증주의 시각을 가진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한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한 이론과 지식체 개발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질적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간호학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간호학자의 층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질적 연구를 하는 학자는 질적 연구만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나 90년대 말에는 양적 연구를 하는 학자가 질적 연구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질적 연구가 연구분야라기 보다는 지식체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해되므로서 특정 간호 개념에 대한 이론 개발의 단계에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용됨으로서 나타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간호 연구의 발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Ryan (1983)은 간호 연구란 간호 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론을 개발하고 이론을 검증하며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간호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개 한가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독립된 여러 연구를 따로 시도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연구는 분야별로 연구 발전 단계가 진행되는 유형을 따르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러한 분야별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는 단계는 임상관찰→조사연구→서술적연구→횡단적 연구→후향적 연구→전향적 연구→실험연구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상위 수준은 실험연구인데 실험 연구는 그 이전의 단계의 연구들에 의한 지식이 축적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질적 연구의 단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학

연구는 분야에 따라서 간호중재연구가 활발히 시행되는 분야가 있는가하면 아직 시작 단계인 개념도출이나 개념 분석 혹은 서술적 연구의 수준에 있는 분야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에 중요한 개념을 분류하여 각 개념별로 연구의 단계를 평가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영역을 간호학의 중심 개념인 4개의 영역-대상자, 간호, 환경, 건강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상자로는 모든 대상자가 총망라되었다. 70년대 80년대 연구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각각 36.9%, 24.9%)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비율은 90년대에는 10.7%로 감소하였으나 대상자가 다양하여져 환자가족, 보호자,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등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노인대상 연구가 두드러졌다. 간호영역에 관련된 연구는 간호과정이나 간호 중재의 내용이 90년대로 가면서 다양해지고 유사실험 연구를 통하여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환경영역의 연구는 환자의 보호자, 사회적 지지등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 연구에서 출현하나 90년대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80년대에 한냉 노출에 관한 연구 한편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론적 기틀이 제시된 논문의 비율은 70년대에는 8편에 불과한데 비하여 80년대에는 82편으로 증가하였고 90년대에는 256편으로 42.8%가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이론적 기틀이 꼭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질적 연구를 제외한다면 90년대 연구의 대부분이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지난 30년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생각되나 생리적 측정법이나 사회심리적 측정법도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사용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70년대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사회심리적 도구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간호연구 방법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높아지면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70년대 연구의 대부분이 t-검정이나 카이검정이 대부분인 데에 비해서 80년대 이후에는 다변량 분석이 증가하였고 통계방법의 다양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것으로도 생각되나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로 쉽게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발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중재의 방법의 유용성을 실험한 연구도 90년대 이후 뚜렷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학의 발달 단계가 서술적 연구 단계를 넘어서 중재방법을 평가하는 연구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히 특정한 간호중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많이 사용된 중재는 이완요법, 체위변경, 환자교육 등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간호중재가 실험연구설계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특정 연구자에 의한 특정 개념에 대한 집중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간호학자들이 한 전문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70년대의 산발적인 연구에 비해 매우 고무적인 변화로 생각된다.

홍근표 등(1983)이 대한간호학회지의 창간호부터 13년간 게재된 논문을 미국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간호 연구방법의 취약점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은 연구가설이나 문제의 진술이 없었고, 제언이 없는 논문이 많았으며, 통제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적이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90년대의 논문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취약점들이 대부분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30년간의 연구논문 분석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이 외형적으로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박성애 등(1994)이 분석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간호 연구를 지식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간호이론개발에 연결시킨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창간호부터 1999년도 말까지 지난 30년간 발표된 논문 전수를 객관적인 틀에 의거하여 연대별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간호학 연구의 동향을 조망해 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959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학위논문보다는 일반 논문의 게재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공동논문과 연구비 수혜논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2. 간호연구의 대상자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차 감소되고 환자, 환자가족, 지역

사회 건강인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3. 간호의 주요개념인 인간, 간호, 건강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중요 연구분야로 다루어져왔으나 환경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4.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였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구수준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함께 간호지식체 발전을 위한 중요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6. 간호연구를 간호지식체 개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수준은 연구 개념분야 별로 다양하여 이미 중재개발의 수준에 와 있는 분야도 있으나, 대부분은 개념분석이나 개념도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간호연구는 그 방법론상에서 눈부신 양적, 질적 발전을 하여왔으나 지식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이론 개발까지 연결시킨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간호연구 결과를 간호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보건정책 입안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향후 연구 논문 분석시 논문의 양적인 평가와 더불어 질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보다 증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triangulation 연구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3. 간호의 주요 개념별로 지식체 개발의 수준을 평가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4. 다학제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간호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강윤희, 이숙자 (1980).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 실제. 대한간호, 19(3), 54-64.
- 구미옥, 이은옥 (1990). 건강신념모델과 한국인 만성질환자의 환자역할 행위. 대한간호, 29(3), 49-63.
- 고옥자 (1992). 학위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의 분석,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4, 161- 180.
- 박성애 (1989). 간호행위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전망. Sigma Theta Tau학술대회보고서, 7-20.
- 박성애, 하양숙, 김금순, 윤순영, 송미순, 정경자 (1994). 한국의 간호학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이론의 발전방향. 간호학논문집, 8(1), 53-82.
- 오가실 (1992).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현황과 문제. 과학의 날 기념 간호학 종합학술대회지.
-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 간호학회지, 22(3), 272-298.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간호의료 연구와 통계 분석, 수문사.
- 최영희 (1995). 질적간호연구. 수문사.
-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향련, 이경자, 박오장, 강현숙, 임난영, 김정인, 최남희, 이선옥, 박지원, 조동숙 (1983).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 22(3), 115-130.
- American Nurses' Association Cabinet on Nursing Research. (1985). Direction for nursing reseach: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Kansas City.
- Barnard K.E. (1980). Knowledge for Practice: Directions for the Future. N.R. vol. 29(4), 208-212.
- Brown, J.S., Tanner, C.A., & Patrick, K.P. (1984). Nursing's search for scientific knowledge. N.R., 33, 26-32.
- Doering, L. (1992). Power and Knowledge in Nursing: A feminist post structuralist view. Adv Nurs Sci, 14(4). 24-33.
- Fraassen B.V. (1986). Aim and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Eisevier Science Publisher. 307-318.
- Gotner, S.A. (1987). Nursing Science in Transition, N.R., 29(3), 180-183.
- Kim, H.S. (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N.Y.: Appleton-Century-Crofts.
- Hinshaw, A.S. (1989). Nursing Science: The Challenge to Develop Knowledge. Williams and Wilkins Publishing Co., 162-171.
- Jacobson, B.S., & Meininger, J.C. (1985). The designs and methods of published nursing reseach : 1956-1983. N.R., 34, 306-312.
- Lewandowski, L.A., & Kositsky, A.M. (1983). Research priorities for critical care nurses. Heart and Lung, 12, 35-44.
- Loomis, M.E. (1985). Emerging content in nursing: An analysis of dissertation abstracts and titles: 1976-1982. N.R., 34(2), 113-119.
- Moody, L., Vera, H., Blanks, C., Visscher, M. (1989). Developing Questions of Substance for Nursing Scienc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1(4), 393-404.
- Notter, L.E. (1971).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20(1).
- Ryan, N. (1983). The epidemiological method of building causal infer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73-81.
- Silvar, M.C. and Rothbarth (1984). analysis of changing trends in philosophies of science o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nd testing, A.N.S., 6(2), 1-13.

-Abstract-

Key concept : Research Analysis, Nursing Research

##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Choi, Kyung Sook\* · Song, Mi Soon\*\**

*Hwang, Ae Ran\*\*\* · Kim, Kyung Hee\**

*Chung, Myung Sill\*\*\*\* · Shin, Sung Rhae\*\*\*\*\**

*Kim, Nam Cho\*\*\*\*\**

This study examined all the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 for last 30 years, from its beginning year to year 1999, based on an objective frame of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Korea to date, and to provide an optimal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he total number of 959 studies were analyzed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Since 1990s, the number of non-degree based research has been larger than that of degree-based research compared to 1970s and 1980s. Both collaborative and funded research has been particularly increased in a gradual rate.
2. Research on nurses or nursing students has decreased while research on more diverse populations such as patients, patient families, or community-dwelling healthy clients has increased.

3. While essential nursing concepts such as human, nursing, and health have been consistently dealt as main research topics, research related to the concept of environment has been insufficiently conducted.
4. It was remarkable that the quality of nursing research has been improved due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 within the nursing community.
5. Qualitative research has appeared in the journal since the late 1990s, but it is still regarded to be in its novice stage.
6. Although the utilization of research findings for expanding the nursing body of knowledge has been wide in diverse specialties, most studies are limited to focus on concept development or evolution yet. also, in some of these research finding are utilization already considerably as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conclusions are extended to the following discussions:

For the last 30 years, nursing research in Korea has shown an acute methodological development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ory development although it is one of the ultimate goals in nursing. Further research should be empirical enough to be utilized in an actual nursing care context, and thus to be basis of developing culturally competent nursing theories in Korea.

---

\*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The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lege of Nursing

\*\*\*\*\*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 The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Correspondence)